

##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죠? 청년들 '신청해' ~

- 고용노동부 - 신한금융희망재단,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 2,000명에 정주 비용 및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은 9.12.(화) 11시, 신한은행 본점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라는 명칭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 홈페이지(www.shinchunghae.co.kr)"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50시간 이상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정주하거나 왕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천 명 규모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 중 1천 명에는 ① 수도권의 높은 거주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3개월간 월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1천 명에는 ② 취업 준비를 위한 학습공간(예, 스터디카페 등) 이용 비용으로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채용시장은 실무경험이나 경력, 자격 등을 중시하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훈련을 추가로 받는 청년이 많다"면서, "정부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힘을 합쳐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신한금융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고용노동부 SNS 등을 통해 신청해 홈페이지 접속 가능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7307)
		담당자	서기관	김부경 (044-202-7311)

- 목적: 비수도권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 환경 조성을 통한 취업 지원
- 기간: 2023년 9월 ~ 2024년 3월
- 지원 대상
  -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년 중 비수도권 취약계층\*\* 2,000명
  - \*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일반직종훈련 등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과정 중 350시간 이상 장기과정 수강자
  - \*\* 비수도권에 거주지가 있으나, 취업 준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을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수도권 정주 비용 및 학습공간 비용 지원
  - (정주비용) 150만원 (3개월 \* 50만원) → 청년 1,000명
  - (학습공간 비용) 60만원 (60회 \* 1만원) → 청년 1,000명
- 사업 절차
  - 모집 공고(1차 9.18.~10.9.)\* → 선발 → 월별 지원금 사용계획 수립 → 월별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및 사업 평가
  - \* 1차 모집 공고 후 지원 건수 등을 고려해 추가 모집 공고 가능
- 기타 [www.shinchunghae.co.kr](http://www.shinchunghae.co.kr) 홈페이지 별도 개설 운영